

#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프리뷰전 개최

전주시, 상생가게 전시 앞서 '뜻밖의 미술관' 서 선정 작가 10명 작품 전시

전주시가 올해로 6년째 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선정 작가 10명의 작품을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시는 13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서노송동 '뜻밖의 미술관'에서 올해 '2026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사업에 선정된 지역작가 10명의 작품을 상생가게 전시에 앞서 미리 선보이는 프리뷰전을 개최한다.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사업은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주 지역 상생가게에 전시함으로써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생가게에는 문화적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상생형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술관과 갤러리 중심의 전시 구조를 넘어, 가게와 거리, 생활공간으로 예술의 접점을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김진우 △ 김보미 △ 김예원 △ 김지우 △ 노병득 △ 문민 △ 엄수현 △ 이보영 △ 이희규 △ 정우석 등 지역 작가 1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사전 오픈전 형식으로 꾸며진다.

특히 시는 올해 사업 추진 6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상생가게 전시에 앞서 프리뷰전을 개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은 각 가게에 전시되기 전 선정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먼저 감상하며, 작품이 지역 상생가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김성혁 서노송예술터 대표는 "이번 프리뷰전의 타이틀은 '가게로 가는 그림들'로 미술관에서 출발한 작품이 상생가게와 거리,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면서 "전시는 단순한 사전 공개를 넘어, 예술과 상권, 작가와 시민, 미술관과 생활 공간을 잇는 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은 "우리가게 예술수장고는 작품을 가게에 전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과 예술가, 시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문화적 접점을 만들어온 사업"이라며 "올해 처음 마련한 프리뷰전을 통해 시민들이 선정 작가의 작품을 먼저 만나고, 이후 상생가게에서 이어질 일상 속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뜻밖의 미술관에서 누구나



'우리가게 예술수장고' 포스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기간 이후에는 선정 작품들이 전주 지역 상생가게 10곳으로 옮겨져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26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오를 차세대 판소리 소리꾼 5인을 최종 선정했다.

##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5인 확정

전주세계소리축제, 전북 출신 2인 포함 차세대 소리꾼 성장 무대 기대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가 '2026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오를 차세대 판소리 소리꾼 5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소리꾼은 △수궁가 부문 소장(1988년생·전북 전주) △흥보가 부문 최광관(1991년생·전북 남원) △춘향가 부문 이수현(2000년생·경기 광주) △적벽가 부문 고한돌(2001년생·충남 공주) △심청가 부문 박시본(2001년생·서울) 등 총 5명이다. 특히 수궁가와 흥보가 부문에서 전북 출신 소리꾼이 선정되며 지역 전통음악의 저력과 계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젊은 소리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판소리의 미래를 이끌 신진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춘향예찬 젊은 판소리' 명칭을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으로 변경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의미를 보다 직관

적으로 담아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유태평양, 김윤희, 정윤형, 민은경, 김주리 등 젊은 판소리 스타들을 배출하며 차세대 소리꾼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선정된 5인의 소리꾼들은 축제 기간 동안 각 바탕별로 60분 내외의 연창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는 관객의 이해를 돕는 해설도 함께 마련돼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관객부터 애호가들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소리축제는 선정자들에게 무대와 음향, 홍보 등 공연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 완성도 높은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리축제는 차세대 음악 창작자의 발굴과 성장, 유통까지 지원하는 '소리 NEXT-소리프론티어' 참가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부안예술회관, 개관 이래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

7억3700만원... 최다 공모사업 선정

부안예술회관이 개관 이래 최대 규모인 국·도비 7억3,700만원 확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굵직한 중앙·광역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이뤄낸 결과로, 부안예술회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공격적인 예산 확보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안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예술을 따오는 공연장', '군민을 위해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문화 플랫폼'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군비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더 크고 더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2026년 공연 라인업 역시 역대급이다. 이남치, 전유진, 양방언, 장사익, 임현재, 인순이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고, 발레·뮤지컬·오페라·재즈·해외오케스트라 초청공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전북 브랜드공연, 품의예술단 플러스 시범사업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사

업까지 더해져 '보는 공연'에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으로의 확장도 본격화된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부안 예술회관이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으로부터 기획력·집행력·콘텐츠 경쟁력 모두를 인정받았다는 공식적인 결과물이다. 특히 농산어촌도시의 공연장이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서 연이어 선방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번 결과는 부안군 문화행정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부안예술회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문화예술의 관을 키우고, 문화도시 부안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주문화관광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깨금발놀이터' 참여기관 모집

(재)원주문화관광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도내(원주, 전주, 군산, 익산, 진안, 정읍지역) 유아들의 창의적 예술경험을 제공하는 2026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깨금발놀이터'의 참여기관을 본격 모집한다.

'깨금발놀이터'는 유아들의 이슬이슬한 깨금 발뛰기처럼 아이들이 예술로 마음껏 상상하고 놀아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차시 '가다릴 수 있어요'(가다릴의 미학) △2차시 '함께 사는 숲'(함께의 미학) △3차시 '나는 자라요'(성정의 미학) △4차시 '느린 것이 예쁜 날'(느림의 미학)을 주제로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아들의 예술적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염재복 기자

## 남원시, 상반기 '월광 포차' 16일부터 운영

남원시가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2026 상반기 월광 포차'를 오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광한투원 경의사가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월광 포차는 춘향제 이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 공연과 먹거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신관사포 부임행차와 취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94 노래방', 다양한 현장 이벤트, 신나는 디제잉 공연 등이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세대를 아우르는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출연진은 △5월 16일 김기태 △5월 23일 김중서 △5월 30일 임정희 △6월 6일 양파 △6월 13일 테이 순으로 이어진다. 남원시는 광한투원의 고즈넉한 야간경관과



아우러진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월광 포차만의 매력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주말 야간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